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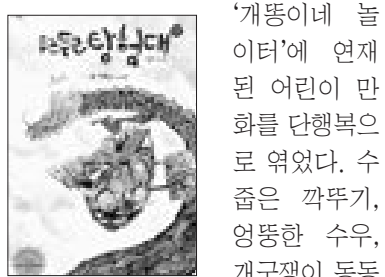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28= 세계명작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28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공공녀' 등 우리에

게 익숙한 명작에서부터 '검은 말 부티' 등 생소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기문비 어린이·1만8천800원)
▲박물관에서 생긴 일=박물관 경비원이 잠깐 조는 사이 누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훔쳐 간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으로 의심받는 9명을 대상으로 진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숨겨진 탐정수가 벌어진다.

(주니어랜드·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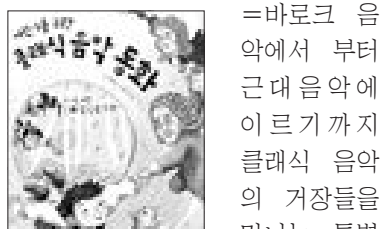
▲두근 두근 탐험대=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연재된 어린이 만화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수줍은 까투리, 엉뚱한 수우, 개구쟁이 동동이가, 똑똑한 소희, 잘난척하는 철이, 성깔있는 강아지 메리가 펼치는 모험이야기.



(보리출판사·9천원)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동화 =바로크 음악에서 부터 근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을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했다.

(주니어랜드·1만2천500원)

▲우리 앞의 세계와 이야기=우리 앞에 다가선 여가까지 세계와 현상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중국 산 풍과 칠레 산 오렌지, 보스니아에 세워진 아시톤의 동상 등 정치, 경제, 문화를 넘나드는 세계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아이세움·9천500원)

그녀는 왜 손톱을 물어 뜯을까?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 앤 가드 지음

졸담배 피우는 것, 머리카락을 꼬는 것, 커피 마시는 것, 자주 자각하는 것... 사실 우리의 하루는 습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책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는 습관이 발달하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상담가이자 심리학자인 저자 앤 가드는 오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감춰진 속마음, 숨겨진 상처가 어떻게 습관으로 드러나는지 생생한 진보를 제공한다.

그가 지적하는 습관의 유형은 다양하다. 잘근 잘근 하루종일 끝 끝 물어뜯기, 이갈이, 빨리 먹기 등 입과 관련된 행동, 노출증이나 관음증 같은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여자는 내재해 있는 공격성을 표출하지 못해 자신의 무기를 스스로 파괴해 버리려는 체념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 시인의 두 손녀에 대한 사랑

할아버지라는... 김유미·김유빈 지음

시인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손녀들은 소설가와 시인이 되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따뜻한 할아버지의 격려가 지금도 그녀들의 든든한 힘이 된다.

지난 2004년 작고한 김춘수 시인의 손녀인 김유미·유빈씨가 김 시인에 대한 추억을 담은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바다를 펴냈다.

두 사람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자상함 그 자체다. 새 학기나 방학이 되면 언제나 엄서를 보내고, 꿈이 뒤송송하다며 손녀 소풍에 따라오고, 수능시험을 볼 때 입시 전문가처럼 많은 정보를 제공하던 할아버지 모습. 매년 책이 나올 때마다 어린 손녀·손자에게까지 사인해 선물하곤 했던 모습들이다.

책 속에는 또 어린 시절부터 손녀들이 쓴 글에 무한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손녀 사랑도 담겨 있다.

(여담·9천 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적행동, 건망증이나 요실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버릇, 빨리 말하기 또는 더듬거리기, 수다 등 말하기와 관련된 습관, 머리를 부딪치거나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 같은 아이들의 습관, 꾸물거리고 거짓말, 자해 등 다양한 습관들을 살펴보고 이런 습관들이 왜 발달했는지, 우리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별로 고찰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종종 삶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깨진 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후 같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이것이 굳어져 습관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나쁜 습관)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밝힌다. 두려움이나 분노, 질투, 근심 등 여러 감정적인 요소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우

세계 각국의 공연 문화 생생히 기록

카니발 로드 유경숙 지음

세계 각국의 유명 공연을 관망하기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난 공연 기획 전문가의 여행서가 나왔다. '난타' 제작사인 PMC 프로덕션, 티케팅 마케팅 연구소 팀장을 지낸 베테랑 공연기획자 유경숙씨가 펴낸 '카니발 로드'는 저자가 1년 동안 겪은 세계 각국의 공연 문화를 생생히 기록한 책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하지 않고 억누를수록 더욱 습관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손톱을 습관적으로 물어뜯는 여자에게는 공격성을 표출하지 못해 자신의 무기를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체념의 심리가 내재돼 있다. 코를 고는 남자에게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심리가, 잘 빠지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권력을 소심한 방식으로 빼앗고 싶어 하는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국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균형 잡힌 상태가 아니라는 암시이며, 삶의 어떤 부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의 습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 습관을 자각하고 있다라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습관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는 습관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처를 털어버려야 하는지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각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 나쁜 습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을 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내면에 감춰져 있던 습관이 보이게 되고, 그 원인으로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정체돼 있는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명상하는 자세로 감춰진 '습관 찾기'에 나서보면 어떨까? 나쁜 습관이 당신을 먹여치우기 전에...

(시애틀출판사·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에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인기, 재산, 명예, 지위 등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이다. 대학에 가본 적도 없고, 재산도 없이, 친구들과 과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죄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죽음은 성공에 종속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묻게 한다. 성공에 대한 자신의 기준은 무엇이고 실패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러한 기준이 정말로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것인가?

10여 년 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선물 받았을 때 책 제목만을 보고 오해했다. 성공에 대한 처세를 나열한 시시한 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책을 넘겨 보는데 놀란 것은 책이 짧았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저자 스티븐 코비는 책에서나 강연에서도 '원칙중심'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원칙은 개인이나 조직의 지침 정도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사람들의 취향이나 의견, 시대와 문화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리킨다. 원칙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나의 성공은 무엇일까?



이 강조한다. 원칙은 개인이나 조직의 지침 정도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사람들의 취향이나 의견, 시대와 문화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리킨다. 원칙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마주 달려오는 기차와 맞설 것인지 아닌 것은 내 가치관만의 문제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물리법칙(원칙)의 문제이다. 결국 능숙한 사람은 원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인간사회에도 자연법칙과 같은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원칙이 있다. 결혼, 사랑, 성실, 용기, 정직, 인내 등과 같은 덕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배려하는 것을 악덕으로 여기는 문화는 없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원칙은 두 개다. '뿌린 대로 거둔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다.(不繼科不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습관 3개, 대인관계의 습관 3개, 자기 해신의 습관 1개는 모두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효과적인 경영기법도 원칙을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방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 책을 읽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스스로 적용시켜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다.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주위의 보통 사람들도 위대하다.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한발 한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도 존경스럽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한다. "간강한 아이를 낳든, 한 폐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김영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신부)



Real estate advertisement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sections for '신촌/송파/관악/강남', '부동산종합개발사', '대중법률경매(주)', and '시원모집'.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승공인중개사' (Daeseung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수원지구' and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합동공인중개사' (Hapdong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and contact information.